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기획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내 몸 자생중생 제도하는게 근본행

어떤 마음으로 놓아야 할지...

문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큰스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맡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인공에게 맡기고 맡긴다는 것은 주인공이 꼭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되건 말건 주인공 자신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인공에게 놓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막상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주인공을 놓기보다 일단 그 일이 머리에 꼭 들어차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인공에 놓자, 주인공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또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혼란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바보같은 질문들이지만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답 사소한 경계에 휩싸여서, 단지 나에게 닥친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조금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근본에 맡겨 놓는 것이 나의 작고 한정된 마음이 깊고 넓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 안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곧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이며, 경계를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고 맡겨서는 안됩니다. 근본 마음이 곧 침침 나이며, 나는 그로 하여나아가는 수행자이므로 그냥 어딘가가 부모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맡기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 합니다.

근본은 일체 생명과 한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 마음 안으로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예컨대 병이 있을 때 그 근본 마음으로 생각을 돌려 스스로 간절해져야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마음은 삼라만상에 흠여져 있는 일체의 약초(藥草)와 같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마음에는 나와 너가 없고, 일체가 다 한 몸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을 돌려놓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살

람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종교입니다.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일이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그럴 아무 다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뭐든지 주인공에 놓는 것을 부지런히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나무에는 공씨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몸나무에 콩 안 붙은 거 못 보셨죠? 그리고 콩씨 심지 않고 몸나무 나는 거 못 보셨죠? 그러나 열매야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맡겨 놓는지요

문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나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지, 잘못 나오는 것이 있으면 생각을 돌려서 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답 때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요.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리고 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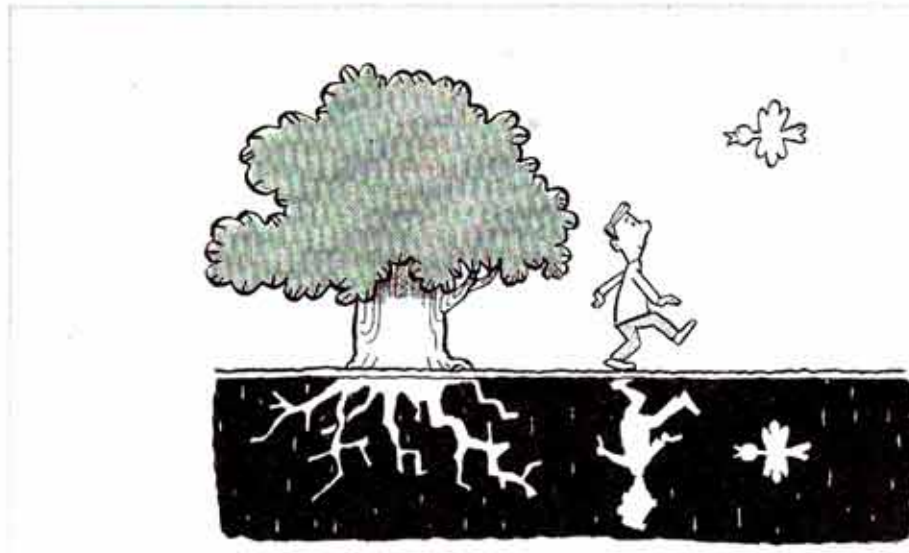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경계 쉬려면 생각 마음안으로 돌려 놓아야 나의 불성은 일체만물만생과 직결돼 있어

떤 때는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맡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믿고 맡기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용광로에 다 한 쇠를 모두 갖다가 넣어 넣으면 새 쇠로 생산이 되어서 나오듯이 그런 작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 듣고, 도반들과 함께 공부해 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맡겨놓으면 내가 관한 것을 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아무리 괴로워해도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한다는 것도 세상 알

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것에 방방 뛰면서 괴로워했다가도, 차분히 내면을 관하면서 맡겨 놓고 지켜보다 보면 슬그머니 돌아서 현실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나 소중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부터 그렇게 믿고 놓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운전수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듯 차가 내가 아니고 운전수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단지 차일 뿐이예요. 주인이 되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맡겨야 하나, 저렇게 맡겨야 하나 생각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게 한 그 자리에서만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체를 맡겨

놓고 살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부와 자를 상봉시키려면...

문 부와 자를 상봉시키려면 관법을 수행해야 하나요?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답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입니다. 이 나는 항상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치를 못합니다. 바로 이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계가 '고(苦)'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 말고 또 하나의 내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 또 하나의 내가 나오는 다른 '또 하나의' 나인 줄 알게 될지도 모르니 '참나(眞我)'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중생으로서의 나

는 '거짓 나'이며, 그런 나까지도 다 포함하는 나의 참된 면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란 말할 것도 없이 참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나는 거짓 나와 떨어져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나와 근본 그 자체가 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생심·번뇌심·삼독심을 '끊고' 참나를 얻는다고보다, 그것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참나로 되바뀐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진실히 믿든 안 믿든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을까요.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놓은 게 아닙니까?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왔으니까, 그 형성시킨 그놈이 바로 부(父)가 되는 겁니다. 참나가 되고,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깨달음, 꼭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가 제 뿌리하고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서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떨어져서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의 근본 뿌리를 못 보는 것은, 바로 무명 굴레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참나를 진정으로 찾아서 실현하게 되면 그때에는 중생으로서의 거짓 나 또한 참나의 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상 자체를 관하고 지켜보고 그 자리에 믿고 맡기는 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속에서 내 안의 참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나를 발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먼저 내 안에 참나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먼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내재되어 있는 나의 근본을 꼭 알아야겠다는 신심으로 일상을 그 자리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좌선중 다섯마디 대나무 보여

문 책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 중인 회신입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하다보니 절에 직접 찾아가는 약간 속스러웠는데 이 '길을 묻는 이에게'가 있어서 너무나 반갑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산행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좌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좌선을 하는데 마음 속에 다섯 마디의 대나무가 허공에 보이는데 양쪽 끝마디는 막혀 있고 안쪽의 세 마디는 썩어있었습니다. 그래 그 뜻이 뭔지 아무리 참구를 해봐도 알 수가 없어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살려 주셔서 저의 말일에 큰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답 알뜰 없는 대피처럼 인과 밖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참나를 돌아볼 때, 고집이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뜰, 인과 밖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인도·중국·한국불교사), 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정운 큰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세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과 불교역사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정운 큰스님
- 자격: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수행·기도·명상·휴양

아름다운 소리산 출세봉, 괴안봉, 반야봉(보궁터) 해탈봉, 나한굴, 바람굴, 약수터 행선코스에서 등산, 산림욕, 산책, 휴양, 명상을!

-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오산, 선채조도인법, 수행의 테크닉 비법을 배우며
- 출가 예정자 수행체험
- 입장을 절로 녹고 소원은 성취되는 기도체험
- 수행, 신행, 명상 기도 커운슬링
- 상가병, 화병, 불면증, 우울증, 냉병, 감기 몸살, 피로회복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 일정: 3, 7, 10, 15, 30, 50, 100일 (한달 교육 수행 속식 20만원 기준)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저녁8시~일요일 아침8시

아름다운 소리산 **법왕정사 수물빛고운 소금강 행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홍천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5km)
 ◆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禪 체조 수련 · 금강경 강의

불교TV에 방영중인 禪체조 수련을 혜원스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아울러 금강경 강의와 참선 법회입니다.

선채조 수련 안내	
아침반	오전 9:00~10:20 (월~토)
오전반	오전 10:40~12:00 (월~토) 목요일 제외

금강경 강의 및 참선법회	
금강경 강의	목요일 10:30~11:10
참선 정진	목요일 11:20~12:00

-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혜원스님의 저서 "선채조 108" "선채조 108비디오" (보급중)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주 소: 강남구 개포동 5단지 상가 신일 B/D
 ■ 전 화: 02)445-6188 / 2226-5962

한국참선체조 수련선원

第4回 韓·日 親善 淨土佛敎 講演會

■ 일 시: 2000년 4월1일(토)·2일(일)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午後 1:30 ~ 4:00
 좌담회 4일(화)·5일(수)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 회의장: 올림픽아 2호 2층 임팩터리움 02-2287-6000

■ 강 사: 高森顯微
 ■ 전 일정에 同時 通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講演內容

眞實을 아는 사람은 幸福하다.
 眞實을 求하는 사람은 더욱 幸福하다.
 眞實을 獲得한 사람은 가장 幸福하다.

제4회 한·일 친선 정토불교 강연회가 아래의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양국의 불자들이 함께 정토불교의 진수를 청문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

오시는길
 ▶ 버스노선 135-1, 135-2(종점 하차 도보10분)
 ▶ 지하철 1호선 7번 출구 135, 135-12 5호선 문화문역 2번출구 한국통신 앞135-1, 135-2 버스종점 3호선 경복궁 전철역 하차 택시 10분

■ 문의 ☎: 02-2222-3990 (박창재)